

'다이로운-모아복합센터' 건립 확정

행안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 최종 선정

총 사업비 222억원... 2026년까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까지 빈틈 없이 밀착 지원하는 시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에 들어선다. 앞으로 지역에 조성될 어린이전문병원·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다이로운-모아(母兒)복합센터' 건립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강영석 익산시 부시장은 9일 기자브리핑에서 "새로 건립될 다이로운-모아 복합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익산의 차별화된 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익산이 저출생 대응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는 행안부가 추진한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도전했다. '아이 가 태어나면 익산이 키운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 지역에 잘 정착하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다.

강력한 의지는 물론, 이미 전국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이력과 경쟁력까지 갖춘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1순위로 선정된 데 이어 전국의 경쟁 지역을 제치고 당당히 최

종 선정 명단에 올랐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발표심사에 이어지는 전반적인 공모 과정 내내 전북 주자치도와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의 꼼꼼한 지원이 빛을 발했다.

이번 선정으로 '다이로운-모아(母兒)복합센터' 건립비 60억 원과 3년 운영비 162억 원 등 모두 2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는 연면적 99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내 건립될 계획이다.

익산시가 기획한 '다이로운-모아(母兒)복합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임신·출산·보육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모아'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엄마·아이에게 필요한 정책을 모아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안에는 △난임부부·맘's 클리닉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센터 △아픈아이 돌봄센터 △마음놀이 상담센터 △아이러브맘 휴 카페 △육아대디(daddy)센터 등이 설치된다.

특히 시는 모아센터를 통해 민관 협력력을 기반으로하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형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 센터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전문병원·익산시공공산후조리원과 한울타리 안에 들어선다.

(주)합소아가 짓는 신동의 어린이전문병원 건물과 한 부지를 공유하며, 그간 분절해 이뤄져온 행정 지원과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사업대상지는 지역 최상위 의료기관인 임광대학교병원과는 350m, 익산시보건소와는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한병도 의원은 "출산·보육 인프라 구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뜻깊다"며 "모아복합센터가 지방소멸 극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익산시의 강한 의지를 비롯해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어렵게 얻은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에게 행복과 안정, 건강을 주는 센터를 조성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특산물 국회 홍보전' 성료

국회서 농특산물과 식품기업 제품 우수성 알려

다사랑치킨·하림산업 등 12개 식품기업 참여

대한민국 식품수도 익산시가 국회를 찾아 지역 농특산물과 식품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익산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9일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익산시 농·특산물 국회홍보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춘석·한병도·조배숙 국회의원,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익산시 농·특산물 국회홍보전'은 지난해 일부 품목의 조기 매진 등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시 마련됐다. 올해는 이춘석·한병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다사랑치킨, (주)하림산업, 세븐브로이즈 등 12개 익산지역 식품기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익산의 대표치킨인 '다사랑치킨'이 300마리의 치킨을 튀겨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주)하림산업의 '다미식'과 '세븐브로이즈'의 '논알'을 비롯해 △초이티브루어리의 전통주 △해피드

지역 소식통

강임준 시장, 군산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 지시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군산시 추석 종합대책과 부서별 세부 준비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다.

강 시장은 "5일의 긴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한다"라면서 "차량 정체, 상수도 단수, 쓰레기 불법투기, 응급 진료 등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8개 분야(도로·교통·수도·하수·청소·환경·식품·보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요 민원 사항을 처리할 방침이다.

주요 민원은 △교통지도 단속 △기름등 고장 △쓰레기 및 동물 사체 처리 △연휴기간 민원 기관 및 약국·음식점 문의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추석 명절 맞이

청소업무 종합대책 추진

9일 군산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청소업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주요 교차로, 관내 가로변, 인죽도로 등의 집중청소를 추진하며 특히, 고군산 도서 지역, 산업단지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에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이는 군산시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라는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연휴 기간인 14~18일 종합상황실과 청소대책반을 특별편성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연휴가 끝난 19~20일 명절기간에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내 곳곳에서 대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휴 기간 중 생활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는 14일, 16일, 18일 수거되며, 15일, 17일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주요 시내내, 관광지 등을 위주로 수거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생활임금 1만730원으로 결정

202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군산시는 지난 6일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650원)보다 180원 오른 1만7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4만 2,570원으로 올해 220만4,950원보다 3만7,62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6,270원)보다는 14만6,300원 높은 수

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건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을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

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추석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14~18일, 당직의료기관 93곳·휴일지킴이 약국 90곳 운영

익산시가 추석 명절 응급환자와 시민들의 진료 이용 편의를 위해 비상 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명절 연휴 기간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 지역 병·의원 93개소이고, 휴일지킴이 약국은 90개소가 운영된다. 원광대학교병원과 익산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을 위해 수사방병원과 익산제일병원 등 연휴 기간인 5일간 10시부터 22시까지 문을 연다. 원광대학교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기존대로 10~24시 운영한다.

지정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익산시와 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소통행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6일 추석 명절을 맞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익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북부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농산물 등을 구입하며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김경진 의장, 강경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정단은 같은날 사회복지시설인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경진 의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석 명절 준비를 위해 인정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나누는 넉넉한 추석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